

마가복음의 예수님(61) - 헌금의 영성(막12:41-44)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예수님께서 헌금을 주제로 말씀하신다. 이것은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계속 질타하시는 말씀이다. 그들은 헌금을 하면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좋아했다.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헌금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외식주의에 빠질 수 있다. 우리가 헌금 할 때의 동기를, 마음을, 내적인 태도를,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겉만 보고 판단한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헌금생활에 대해 배워야 한다. 본문은 헌금에 대해 세 가지로 교훈한다.

1. 예수님은 우리의 헌금생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예수님은 그 헌금함 가까이에 앉아계시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셨다. 이것은 그냥 한 번 쓱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지켜보는 행동, 관심을 갖고 살피시는 행동을 나타낸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재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까지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삼일 앞 두고 하셨다. 이것은 헌금이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기 때문이다. 구원 받은 자는 헌금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와 헌신을 표현해야 함을 가르치신 것이다. 그러므로 헌금은 신앙의 척도다. 헌금은 영성 그 자체다. 말씀을 통해 올바른 헌금생활을 가르친다면 마음을 열고 듣고 순종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는지 ‘보시는’ 분이시다

2. 헌금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41절下~42절) “...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렵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부자도 가난한 과부도 다 성전에 나와서 헌금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부자는 소유가 많으니까 많이 드렸고, 과부는 가난하니까 두 렵돈을 드렸다. 렵돈은 당시 화폐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다. 누가 보면 부끄러워할 만한 헌금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 그녀는 어려운 형편 중에도 헌금생활을 이어가면서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헌금을 드리지 못할 사람은 없다. 단지 헌금을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뿐이다. 헌금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이다.

3.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이 보시는 헌금의 기준은 세상과 달리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얼마나 크게 받아드리셨는가 하는 것이다.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하지만 자신을 위한 것을 더 많이 남기고 하나님께는 적게 드렸던 것이다. 가난한 과부는 겨우 ‘두 렵돈’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자신의 것을 하나도 남김 없이 전부를 드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헌금을 더 크게 받아들이셨고,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선 서기관들의 외식을 질책하시고 가난한 과부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다. 헌금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기쁨으로 드리며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헌금생활을 하자.

마가복음의 예수님(61) - 헌금의 영성(막 12:41-44)

1. 마음 열기 - 내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나는 선물은?
2. 경배와 찬양 - 찬 50장,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시다

1.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2.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3.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 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3. 말씀 나누기 - 먼저 성경 본문과 말씀 요약을 읽으세요.

- (1) 성경 본문과 설교를 통해, 특별하게 다가온 말씀이나 은혜받은 교훈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 (2) 예수님은 우리의 헌금 생활을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헌금은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드려야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동기로 헌금합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헌금하는지,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 (3) 가난한 과부의 동전 두 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다음 성경구절에 비추어 자신의 헌금생활을 돌아봅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 9:7)

4. 사역 나누기

- (1) 성령 충만한 목장과 돌봄이 필요한 목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 (2) 우리 목장이 품은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3) "대심방"을 준비하며 위해 기도합니다.